

## 축 사

존경하는 이호용 국회환경경제연구회장님, 그리고 중국·일본·몽골·러시아·미국 등에서 참가하여 주신 각국 정부대표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도시 대기환경 관리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과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국회환경경제연구회, 환경부 및 서울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오랜 세월 금수강산으로 불리웠습니다. 특히 맑고 푸른 하늘은 한국의 가을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본격화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오늘, 한국 특히 수도권은 심각한 대기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세계의 모든 대도시들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장이 들어서고 인구가 집중되고 자동차가 늘어나고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세계적으로도 인구와 자동차의 집중면에서 손꼽히는 서울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지난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그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공해차 보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부착, 초저황 경유 공급 등이 시작되었고, 수도권 대기오염을 총량관리하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이런 대책에 앞으로 10년간 총 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세계의 도시인들은 깨끗한 공기를 숨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의 한가운데 자리한 남산에서 서해안의 인천 앞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대도시 서울과 수도권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숨쉴 있도록 하겠다는 큰 각오로 나섰습니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서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나라와 경험을 교환하고 지혜를 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아 여러나라, 그리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처럼 한자리에 모여 “대도시 대기질 관리정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 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에서 오신 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동북아 5개국의 종 복원사례, 지방정부의 생태복원사례 및 지속가능한 산업단지관리 방안 등에 관해 서로의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동북아환경

협력회의가 계속됩니다.

동북아의 환경협력 논의 기회는 많이 있지만, 특히 이번 회의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연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는 정책포럼입니다. 오늘 토론회와 내일부터 이어질동북아 환경협력회의가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가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빌며, 다가오는 새해가 희망찬 날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祝 辞（仮訳）

韓国環境部副大臣 Ms. PARK, Sun-Sook

尊敬するイ・ホウン国会環境経済研究会長、そして中国、日本、モンゴル、ロシア、米国等から参加して下さった各国政府代表および内外の貴賓の皆様！

今日皆様にお集まりいただき、都市部における大気環境管理政策に関する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喜ばしく思い、お忙しい中にもかかわらずご参加いただいた参加者の皆様と、会議を準備して下さった国会環境経済研究会、環境部およびソウル市関係者の方々に感謝申し上げます。

内外の貴賓の皆様！

大韓民国は永い歳月、錦繡山河と呼ばれてきました。青い空は特にきれいで、韓国の秋を象徴する言葉でした。

しかし、産業化が本格化して30余年が過ぎた今日、韓国、特に首都圏は深刻な大気問題に直面しています。程度の差はありましようが、全世界のすべての大都市が同じ問題を抱えています。工場が建ち人口が集中し、自動車が増え都市が成長すればするほど、問題は深刻化します。

世界的にも人口と自動車の集中の面で屈指のソウルの問題は、さらに深刻です。私たちは昨年、「首都圏大気環境改善特別法」を制定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突破口を探そうと努めています。

低公害車の普及、排出ガス低減装置装着義務、超低硫化軽油の供給等が始まり、首都圏の大気汚染を総量管理するために準備中です。こうした対策に今後10年間、計6兆ウォンの予算を投資する計画です。

全世界の都市の人々は、きれいな空気を吸える権利をなくしているといっても過言ではありません。

韓国政府は、今後10年以内にソウルのどまん中に位置する南山から西海岸の仁川近海までひと目で見渡せるように、大都市ソウルと首都圏の住民がきれいな空気を吸えるようにするという大きな覚悟を固めました。可能なあらゆる努力をしようと思います。しかし、まだ私たちには完璧な解答はありません。可能な限り早いうちにその目標に達するためには、世界の様々な国と経験を交換し知恵を借りなければならないでしょう。

そうした意味で、北東アジアの様々な国、そして米国の専門家らがこのように一堂に集まり、「都市部における大気環境管理政策」を議論する機会を持つことになったことは、私たちすべてにとってこれ以上ない大切な機会になるものと考えます。

そして北東アジアから来られた皆様に一言申し上げます。明日から2日間、北東アジア5ヶ国の種の回復、地方自治体における環境回復および工業団地

における持続可能な管理等に関して、お互いの政策および経験を共有する環日本海環境協力会議が続きます。

北東アジアの環境協力議論の機会はたくさんありますが、特に今回の会議は、政府及び地方自治体、そして市民団体、研究団体等、多様な利害関係者が参加する政策フォーラムです。今日の討論会と明日から続く環日本海環境協力会議が、政策経験を共有し友誼を固める機会となるよう願います。

参加された皆様すべての健勝を祈り、迫りくる新年が希望に満ちた日となることを祈り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